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1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3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2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운영 방향 설정
- ◆ 인천남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본격 추진 예정
- ◆ 광양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본격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유럽 간 무역 긴장 고조 전망
- ◆ 머스크-하팍로이드, 새로운 얼라이언스 출범 발표
- ◆ 호주 DP World 터미널 파업 장기화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홍해 리스크로 인해 수에즈 운하 통과 컨테이너선 감소
- ◆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 등으로 철광석 가격 하향 안정화 전망
- ◆ 석유화학업계, '24년도에도 공급과잉·수요부진 지속 전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운영 방향 설정¹⁾

- BPA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년 1분기 중 세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입주희망기업들을 위한 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희화된 우암부두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직접·융복합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구역임
 -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지난 '22년 준공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등과 협업하여 3건의 정부지원사업 시설(부산지식산업센터,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도 지난해 도입 및 운영을 확정함
 - 세부 운영방향은 잔여부지인 산업시설용지(61,591㎡)에 대해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기업의 복지를 위한 회의실, 강의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원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힘
 - 지원시설은 총 6,489㎡ 규모로 올해 수립될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구역	우암부두(부산시 남구 우암동 265번지 일원)
사업 규모	기반시설 177,983.1㎡, 지원시설 1식 - 산업시설용지(92,534.8㎡), 지원시설용지(6,489.2㎡), 만천수시설(15,872.3㎡), 주차장(5,446.3㎡), 부두용지(7,493.3㎡), 도로(50,147.2㎡)
추진 상황	'16.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7.04: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고시 '17.12: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고시 '18.04 ~ '19.12: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0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준공 '12.12: 기반시설(도로 B= 13~20m, L=2,053m) 관리 이관(BPA→시→남구)

구분	주요 내용																										
유치 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177,983.1</td> <td>100.0</td> </tr> <tr> <td>산업시설용지</td> <td>92,534.8</td> <td>51.8</td> </tr> <tr> <td>지원시설용지</td> <td>6,489.2</td> <td>3.6</td> </tr> <tr> <td>항만친수시설</td> <td>15,872.3</td> <td>8.9</td> </tr> <tr> <td>부 두 용 지</td> <td>7,493.3</td> <td>4.2</td> </tr> <tr> <td>주 차 장</td> <td>5,446.3</td> <td>3.1</td> </tr> <tr> <td>도 로</td> <td>50,147.2</td> <td>28.4</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77,983.1	100.0	산업시설용지	92,534.8	51.8	지원시설용지	6,489.2	3.6	항만친수시설	15,872.3	8.9	부 두 용 지	7,493.3	4.2	주 차 장	5,446.3	3.1	도 로	50,147.2	28.4	
		구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77,983.1	100.0																									
산업시설용지	92,534.8	51.8																									
지원시설용지	6,489.2	3.6																									
항만친수시설	15,872.3	8.9																									
부 두 용 지	7,493.3	4.2																									
주 차 장	5,446.3	3.1																									
도 로	50,147.2	28.4																									
		토지이용계획표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09.)를 바탕으로 KMI 제작성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선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²⁾

- 부산청은 '23년도 부산항 관내 내항화물선 해양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겠다고 밝힘

 - '23년 부산항 관내 내항화물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총 9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나타냄('20년 : 27건 → '21년: 25건 → '22년 : 11건 → '23년 : 9건)
 -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충돌(접촉), 해양오염, 침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종별로는 부선, 급유선, 예인선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양사고 저감기조를 지속하고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할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선종별 위험도 상위 10% 선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선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 둘째, 선박 안전 지도·감독 시 선주의 현장참여 확대를 통해 선주가 선박안전을 위한 장비, 설비 등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셋째, 우수선박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수여하고, 사업장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임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1.10.),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07\(2024.01.11. 검색\)](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07(2024.01.11. 검색))

이를 통해 부산청은 부산항이 세계적인 안전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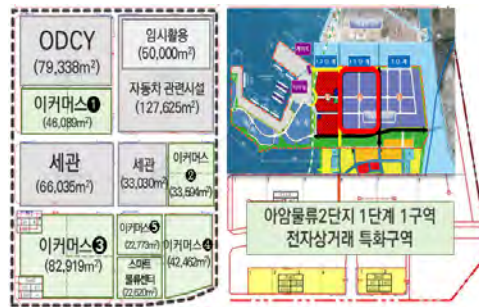
2) 인천항

1 아암물류2단지 내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 진행³⁾

인천항만공사(IPA)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개 획지에 대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4차’의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년 3월 도입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전국 항만 최초로 면적 25만 m²의 아암물류2단지가 같은 해 8월 지정되었음
- 현재 관세청 통합검사를 중심으로 물류센터 건축 2개사, 공동물류센터 입주 1개사 등 총 3개의 입주기업이 선정되어 입주를 준비 중임
- IPA는 '23년 12월 잔여부지에 대한 2개사의 사업제안을 적격사업으로 채택하고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번 제안공모를 실시함
- 제3자 제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제안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IPA는 향후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15)

구분	입주기업	면적(m ²)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① 로지스밸리HTNS	46,089
	② (주)명주창고	33,594
	③ 모집예정	82,919
	④ 제3자 공모	42,462
	⑤ 제3자 공모	22,773
스마트	IGFC 컨소시엄	22,620
소계		250,457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1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26421> (2024.01.16.검색)

2 '24년 인천남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본격 추진 예정⁴⁾

- IPA는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남항 역무선 항만배후 부지 일대에 스마트 오토밸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 '23년 5월 운영사업자와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각종 인허가(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음
 - '24년 상반기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1단계 조성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 추세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 플랫폼으로 향후 인천항 및 인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2.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26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4.01.16. 검색)

3) 여수·광양항

1)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본격 추진⁵⁾

여수국가산단 전면 항로인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묘도수도는 석유화학산업이 주종인 여수국가산단단지과 광양항 배후단지가 인접해 현재 위험물 취급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항로 폭이 좁고 불규칙한 지형 특성상 선박 운항의 안전성 미확보 및 정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은 구역 내 무인도인 소당도와 송도 일부를 제거하고 항로 폭을 300m로 확장해 선박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함
- 해당 사업에는 약 1,400여억 원이 투입되며, '24년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여 '30년 완공을 목표로 함
- 한편 여수시는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월 22일까지 여수시청과 묘도동·삼일동 주민센터 등에서 공람하고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개요



자료: KBS뉴스(2024.01.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759>(2024.01.15.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KBS뉴스(2024.01.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759>(2024.01.15. 검색)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UPA) '24년도 예산, 2,096억 원 확정⁶⁾

- ▶ UPA는 '24년도 예산을 2,096억 원으로 편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특화항만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임
 - UPA는 4대 경영목표 달성 및 친환경 에너지 특화항만 도약을 추진할 계획임
 - 4대 전략 중, '친환경 에너지 특화 항만선도' 부문에서 '항만주도형 LNG 벙커링 합작 법인 설립·친환경에너지 비축사업 출자·남신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등'에 352억 원을 편성함
 - '고부가가치 항만구현' 부문에는 '베트남 해외물류센터 법인설립·화물유치 인센티브·항만마케팅 강화'에 451억 원을 편성함
 - 그 외, '지속가능 경영실현' 부문에서 '안전항만·친환경 인센티브·ESG 경영 강화'에 206억 원,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등'에 64억 원을 편성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청), '24년 울산지역 항만에 2,118억 원 투입 예정⁷⁾

- ▶ 울산청은 '24년에 울산지역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에 2,1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울산신항 개발에 1,388억 원, 재해안전항만구축에 719억 원, 국가어항에 1억 원, 항만 시설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 특히, 남신항 외곽시설 건설사업의 최종사업인 남방파제(2-3공구) 건설에 1,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할 예정임
 - 남방파제(2-3공구) 준공 시, 남신항 지구에 방파제 3.1km, 방파호안 1.42km 확보로 원활한 항만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이 확보될 전망임
 - 그 외 태풍 및 자연재해 내습 대비를 위한 방파제 보강 사업의 경우, '21년 하반기에 착공한 '남방파제(1단계) 보강사업'은 1공구 '25년 8월, 2공구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년 2월 착공한 '동방파제 보강사업'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12.28.),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8314(2024.01.17. 검색)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12.28.),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01787>(2024.01.17. 검색)

5) 평택·당진항

1 경기평택항만공사, '23년 10월 기준 평택항 월간통계 발표⁸⁾

- 📌 평택항의 '23년 1~10월 누적 총물동량은 9,591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67만 3천 TEU, 자동차 134만 대, 여객 2만 1천 명을 기록함
 - 평택항의 '23년 1~10월 누적 총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9,591만 톤이며, 전국 무역항 중에서 총물동량을 기준으로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에 이어 5위임
 -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전국 무역항 중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 이어 4위 항만임
 - 자동차는 대수 기준 13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전국 무역항 중에서 자동차 물동량 기준 1위 항만임

평택항 2023년 1~10월
누적 물동량

품목(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2022)	2022년 10월 누계	2023년 10월 누계	전년동기 누계대비
전체 (천 톤)	106,847	116,876	116,171	-0.6%	97,028	95,909	-1.2%
컨테이너 (천 TEU)	793	936	852	-9.0%	724	673	-7.0%
자동차 (천 대)	1,260	1,429	1,635	14.4%	1,346	1,340	-0.5%
여객수 (천 명)	40	-	-	-	-	21	-

자료: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운영통계(2024.01.22.),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4461&pageId=K003006001\(2024.01.24. 검색\)](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4461&pageId=K003006001(2024.01.24.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6) 포항항

1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으로 생산설비 일시 중단⁹⁾

- 📌 12월 23일 오전 7시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인근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4고로를 포함한 주요 공정이 일시 중단됨
 - 화재는 2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부생가스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중단했던 세 개의 고로는 각각 24일 오전(2, 3고로)과 25일 새벽(4고로)에 재가동됨
 - 화재 사고 이후 즉각적인 설비 수리가 이루어졌고, 설비 가동 중단 시간이 짧았던 만큼 철강 제품의 생산 및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8)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운영통계(2024.01.22.),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4461&pageId=K003006001\(2024.01.24. 검색\)](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4461&pageId=K003006001(2024.01.24. 검색))

9) 연합뉴스(2024.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30500053\(2024.01.18.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30500053(2024.01.18. 검색))

7) 동해·묵호항

1 한·러·일 국제여객선 일본항로 2월 재개 예정¹⁰⁾

- 동해항을 기항하는 한·러·일 국제카페리의 일본항로 운항이 여객은 4년 3개월, 화물은 1년 10개월만인 올해 2월 재개될 예정임
 - 동해항 국제카페리 선사인 두원상선은 지난달에 해양수산부에 기존 면허를 일본 교토부의 마이즈루시에서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시로 바꾸는 면허변경신청을 접수함
 - 두원상선은 '24년 1월 15일 선박 정기안전검사를 위해 정비에 들어가는 이스턴드림호가 정비를 마치고 투입되는 2월 15일 이후부터 동해항과 사카이미나토항 간 주1항차 국제 정기항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임
 - 일본항로에 대한 기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두원상선은 당초 일본 교토부의 마이즈루시에 항로를 개설하고자 했으나 마이즈루시 측과 국제항로운항 장려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시로 협의 대상을 변경함
 - 두원상선은 일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취항을 요구한 일본 사카이미나토시와 부두사용, 항만비용, 관광상품 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쳐 면허변경을 신청함
- 지난 '21년 1월 DBS크루즈웨리를 인수한 두원상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은 제외한 화물 운송만으로 한·러·일 국제카페리를 유지하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의 화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22년 5월 일본 항로를 완전 중단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0) 강원도민일보(2023.12.27.),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1084>(2024.01.10. 검색)

8) 목포항

1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준공으로 항내 이용여건 개선 기대¹¹⁾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설공사’가 지난 12월 26일 준공됨에 따라 목포북항 이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그동안 목포항은 북항, 남항, 내항(동명동) 물양장 등으로 산재되어 접안하는 어선들로 불편을 겪어옴
 - 이에 목포청은 국비 380억 원을 투입해 접안시설 413m와 부대시설을 마련해 수협위판장이 있는 목포북항 내로 접안하는 어선들이 원활하게 위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물양장을 확충함
 - 이번 확장시설 준공으로 목포북항 내측에 접안하는 선박들의 혼잡도를 낮춰 항내 안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부두 전면에는 종계단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조명시설도 확충해 물양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도 조성함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2 목포시, 국내 최고의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구축에 역량 집중¹²⁾

- 목포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중량물 초대형 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의 야적·운송·조립이 가능한 특화 지원항만과 배후단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목포 신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철재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배후단지(약 15만 평)가 조성되어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
 - 이에 목포시는 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철재부두(5만 톤급) 1선석과 2단계 배후단지(238천 m²)의 추가 건설을 위한 건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전타당성조사 및 국고 확보를 통해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목포시는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임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1.04.),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1897>(2024.01.15. 검색)

12) 목포시청 보도자료(2024.01.12.),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22456&mode=view (2024.01.15. 검색)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 무역항 이용 외항선 점검¹³⁾

- 📌 대산청은 충청권역 무역항(대산·당진·보령·태안)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할 예정임
 - 항만국통제(PSC)는 국내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등의 국제협약 부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임
 - 기국통제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 등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임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군 선박 중점점검’,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비 및 대기환경 규제강화’ 등이 포함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군산항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4년도 해상교통안전 예산 24억 투입 예정¹⁴⁾

- 📌 군산청은 '24년도 항로표지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정비에 2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부안군 모항 북서쪽에 위치한 간출암에 등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한편 장기간 운영 중인 등표 3기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과 시설물 결함 등을 평가하고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함께 수행할 예정임
 - 군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항로표지 시설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1.04.),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1908>(2024.01.17. 검색)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1.04.),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101903>(2024.01.16. 검색)

11) 마산항

1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¹⁵⁾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27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항 제3부두에서 ‘마산항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함

 -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및 「구(舊) 해양 오염방지법」에 따라 '94년부터 '97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 59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약 82억 원을 투입해 전국 13개 무역항에 폐유수용시설을 설치함
 - 그 후 '98년부터 26년간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해 왔으며, '23년 11월 기준 약 8,198톤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함
 - 그러나 설치한 지 오래된 폐유저장시설은 노후화되어 작업 안전과 처리기능 저하 등 개선이 필요해 해양수산부는 노후화된 폐유저장시설 교체를 통해 작업 안전성을 높이고 폐유 수거 및 처리기능도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총 174억 원을 들여 마산, 목포, 광양항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에 착공함

-  마산항 폐유저장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 폐유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 중 첫 번째로 준공되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700㎡ 규모로 관리동, 창고동, 탈취설비동, 저장탱크동으로 구성됨

 - 또한, 작업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탈취장치, 저장탱크 등 각종 기자재를 교체·증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처리 자동화시스템 등을 새로 도입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해양수산부(2023.12.26.),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54627>(2024.01.1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23년 12월 수출액,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 반면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¹⁶⁾

-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수출 실적 개선 및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개선 전망 등으로 세계 무역의 회복세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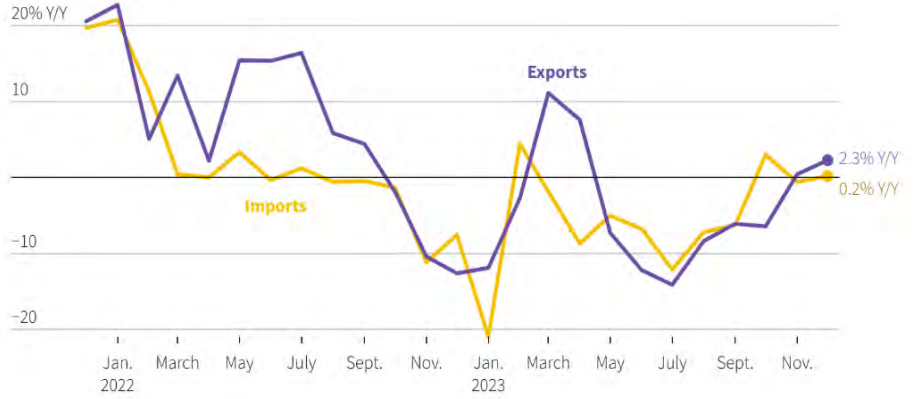
 - 한국의 수출액 역시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11월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함
 - 또한, 올해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최소 1.5%p 하락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23년 12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수입액은 같은 기간 0.2% 증가함**

 -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로 중국의 수출액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은 지난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다만, '23년 중국의 수출액은 하반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및 부동산 위기 장기화,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24년에도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 '23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2% 상승하며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3.0% 하락해 '15년 이후 가장 높은 하락세를 기록함
 - 한편, 중국의 디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무역 여건 악화는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6) REUTERS(2024.01.1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dec-trade-cpi-paint-mixed-economic-picture-start-2024-2024-01-12/>(2024.01.16. 검색)

2023년 중국 전년 대비
수출입 증가율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dec-trade-cpi-paint-mixed-economic-picture-start-2024-2024-01-12/>
(2024.01.16.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의 EU산 브랜드 반덤핑 조사 개시에 따른 중국-유럽 간 무역 긴장 고조 전망¹⁷⁾

- ❖ 지난 1월 12일, 중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 중국 정부는 해당 조사가 중국주류업 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20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브랜드가 집중 조사 대상임
 - 브랜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증류주이며, 대부분 프랑스에서 수입되고 있음¹⁸⁾
- ❖ 반면, 전문가들은 해당 조사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및 바이오 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맞대응이라는 분석임
 - 지난해 9월 EU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관세부과 조사 방침을 밝혔으며, 중국산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통해 자국 바이오디젤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함
- ❖ 이러한 무역 보복 조치 확대가 중국과 EU 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EU는 지난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제3국의 통상 압박 행위에 대해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
 - 한편, 경제블록 간 무역 장벽 등이 확대되면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NIKKEI Asia(2024.01.05.),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war/China-opens-tit-for-tat-anti-dumping-investigation-into-EU-brandy>(2024.01.16. 검색)

18) Financial Times(2024.01.06.), <https://www.ft.com/content/8d61f9c6-dc3f-4228-9308-eeede9d328b7b>(2024.01.16. 검색)

2) 아시아



1 '23년 싱가포르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4.6% 증가한 3,901만 TEU 기록하며 종전 최고기록인 '21년 3,757만 TEU를 상회¹⁹⁾

- 싱가포르항 총 항만물동량은 5억 9,170만 톤으로 '22년도 5억 7,822만 톤 대비 2.3% 증가함

 - '23년도 싱가포르항을 입출항한 선박의 톤수(GT)는 30억 9천만 GT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30억 GT를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함
 - 현재 투아스항(TUAS Port) 1단계의 8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매립작업은 70%가 완료된 상황임

Singapore port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머스크(Maersk), 일본의 친환경 메탄올 벙커링 네트워크에 합류²⁰⁾

-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친환경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 개발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시 및 미쓰비시가스화학(MG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19)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 (2024.01.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singapore-enjoys-record-container-throughput-in-2023/> (2024.01.16. 검색)

20) Seatrade Maritime(2024.01.08.),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maersk-joins-japanese-green-methanol-bunkering-network\(2024.01.16.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maersk-joins-japanese-green-methanol-bunkering-network(2024.01.16. 검색))

- 머스크는 '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24척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발주하였으며, 이 중 12척은 1만 6,000TEU, 6척은 1만 7,000TEU, 6척은 9,000TEU급 임
- 이에 현재 건조 중인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친환경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업무협약은 요코하마항에 친환경 메탄올 벙커링의 경제성 검토와 항만시설 개발이 주요 내용임
- 요코하마시는 '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로 일본의 녹색해운회랑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녹색 및 디지털 해운회랑(GDSC)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하고 있음
- 또한 요코하마시는 머스크의 계열사인 APM터미널재팬(APM Terminal Japan)이 운영하는 미나미-혼모쿠 컨테이너터미널을 포함해 요코하마항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미나미-혼모쿠 터미널은 길이 1,600m, 수심 18m로, 최대 24,000TEU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하며, 연간 약 24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일본의 대표적인 컨테이너터미널로, 인근 토지로의 확장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PSA 뭄바이,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인도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²¹⁾

- ▶ PSA 뭄바이는 7.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운전함으로써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인도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이 됨
- PSA 뭄바이는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RTGC(고무 타이어 갠트리 크레인)를 포함한 모든 하역장비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모든 RTGC의 전기화는 '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터미널의 탄소(CO₂) 배출량은 연간 16,000톤, 운영기간 동안 35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4년 초 PSA BDP의 e-트럭이 출시되면, 터미널과 CFS 및 고객 시설 사이에 배출가스가 없는 운송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PSA 뭄바이의 재생 전력과 CFS, PSA Ameya, PSA BDP India의 트럭 운송 관련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녹색 운송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예정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1) Seatrade Maritime(2024.01.08.),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psa-mumbai-first-indian-container-terminal-using-100-renewable-energy/>(2024.01.16. 검색)

3) 미주



롱비치(LB)항, 연방정부로부터 ‘America’s Green Gateway’

1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 8,300만 달러를 받을 예정²²⁾

- ◆ LB항은 올해 1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B부두(Pier B) 내 철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사업을 통해 '32년 완료할 예정임
 - 수출입 수송 시 온도크 레일(on-dock rail)을 이용하면 트럭운송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육상구역에서 트럭 출입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임
 - 새로운 시설은 기존의 B부두 철도 부지(82에이커)의 2배 이상인 171에이커 규모이며, 부두 내 화물처리량은 기존 150만 TEU에서 470만 TEU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야드에서는 최대 30대의 기관차에 연료를 동시에 공급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창고와 최대 10,000피트 길이의 열차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출 예정임
 - 본 철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화물의 철도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를 통한 배송속도 향상 및 혼잡 완화, 환경 영향 감소 효과가 예상됨
 -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메가 그랜트 프로그램(Mega Grant Program)의 일환으로 LB항 부두 내 철도 개선 사업에 지원금 2억 8,3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임
 - LB항은 연방정부로부터 이미 본 사업을 위해 약 1억 500만 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23년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STA)으로부터 B부두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80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받는 등 LB항은 현재까지 B부두 사업에 6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확보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2) Port Technology(2023.12.1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receives-283-million-grant-for-new-green-gateway/>(2024.01.17. 검색)

2 버지니아항, 100% 청정에너지 달성²³⁾

- 버지니아항은 미동안 주요 항만 중,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청정전기로 공급하는 첫 번째 항만임**

 - 탄소배출은 2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스코프1은 장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이며 스코프2는 전기 장비에 대한 전력 공급 및 충전, 그리고 전기, 조명, 난방, 에어컨 등을 갖춘 항만 건물에 전기 공급을 위해 발생하는 배기가스임
 - 버지니아 항만공사(POV: Port of Virginia)는 항만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100%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을 통해 '4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길 계획임
 - 현재 버지니아항은 노퍽(Norfolk)항 국제터미널(International Terminals) 북부두(North Berth)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스택킹 크레인인 116대에서 152대, 전기 레일 크레인인 4대에서 7대, 전기 STS(Ship-to-Shore) 크레인인 27대에서 31대로 확대될 전망임
 - 그 외 POV는 포트머스항에 있는 포트머스 마린터미널(PMT)에서 진행되는 미동안 최초의 해상풍력 물류허브 개발에도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머스크(Maersk),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서비스 조정²⁴⁾

- 머스크는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사이를 운항하는 OC1 서비스 변경사항을 발표함**

 - 파나마 운하 당국(ACP)이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가뭄 호수의 가뭄으로 인해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와 무게를 줄임에 따라, 운하를 이용하던 선박들은 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철도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수송하는 랜드브릿지(land bridge)를 이용하게 됨
 - 이 방식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두 개의 분리된 고리를 만들게 되는데, 태평양 운항 선박들은 파나마 발보아항에서 선회하여 중남미와 북미로 향하는 화물을 양하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게 됨
 - 반대편에서는 대서양 운항 선박들이 파나마 만자니요항에서 회항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화물을 내리고 중남미와 북미로 향하는 화물을 회수하게 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Port Technology(2024.01.0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virginia-achieves-100-per-cent-clean-energy-milestone/>(2024.01.17. 검색)

24) Port Technology(2024.01.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aersk-adjusts-services-amid-panama-canal-water-woes/>(2024.01.17. 검색)

4) 유럽



1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Gemini Cooperation 얼라이언스 출범 발표²⁵⁾²⁶⁾

- 2M 해체 발표 이후 얼라이언스 재편에 대한 가능성이 예상된 가운데,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새로운 얼라이언스 출범을 발표함
 - 하파그로이드는 '25년 1월 THE 얼라이언스를 탈퇴하고, 내년 2월부터 머스크와 Gemini Cooperation 얼라이언스를 구성할 예정임
 - 두 해운사는 90% 이상의 높은 정시성 확보를 위해 허브앤스포크 방식의 노선을 운영할 예정으로, 두 해운사가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주요 항만을 허브로 삼아, 메인 서비스 하나당 2~3개의 주요 항만에만 기항하여 지연 위험을 낮추고, 32개의 셔틀 서비스를 통해 나머지 항만에 기항할 계획임
 - 한편, 선복량 세계 5위 선사인 하파그로이드가 THE 얼라이언스를 탈퇴함에 따라 나머지 선사인 HMM, ONE, 양밍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며, 전문가들은 OCEAN 얼라이언스 또한 해체·재편될 것으로 전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앤트워프-브뤼헤항, '23년 코카인 121톤 적발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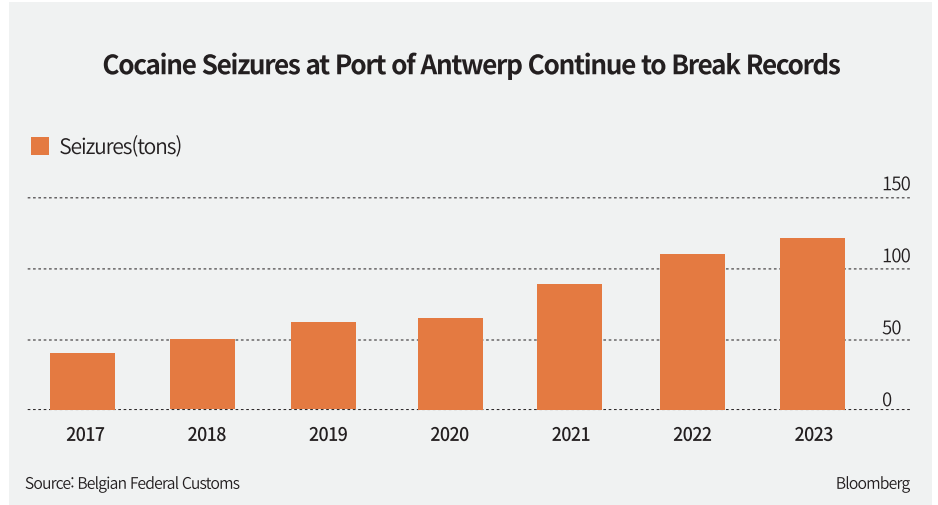
- 벨기에에는 항만으로 밀수되는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많은 협력과 투자를 통해 '23년 앤트워프-브뤼헤항에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1톤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1월 10일 발표함
 - 벨기에에는 유럽으로 밀수되는 마약의 주산지로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를 지목함
 - 마약 밀수조직은 신선화물이 항만 구역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냉장 컨테이너를 마약 밀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발각된 큰 규모의 밀수 중 많은 경우가 바나나와 함께 섞여 운송되었다고 언급함
 -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와 맞서 싸우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유럽 권역뿐 아니라 중남미 항만 및 국가와의 합동작전이 포함됨

25) Seatrade Maritime(2024.01.17.),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maersk-and-hapag-lloyd-cooperation-set-alliance-domino-effect>(2024.01.18. 검색)

26) Seatrade Maritime(2024.01.17.),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shippers-welcome-gemini-alliance>(2024.01.18. 검색)

27) The Maritime Executive(2024.01.17.),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record-amount-of-cocaine-smuggled-through-belgian-ports-in-2023> (2024.01.18. 검색)

안트워프-브뤼헤항
코카인 압수량



자료: Bloomberg, <https://www.bnnbloomberg.ca/cocaine-seizures-surge-at-key-european-port-1.2022955>(2024.01.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5) 오세아니아



1 호주 DP World 터미널 파업 장기화²⁸⁾

- ▶ '23년 10월 말 호주 해상 노동조합(Maritime Union of Australia, MUA)의 노동자들이 DP World 터미널을 대상으로 시작한 전국적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드니, 브리즈번, 프리맨틀항의 하역작업이 중단됐으며 멜버른항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임

 - 이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MUA가 DP World와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임
 - MUA는 평균 약 13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연봉에 27.5%의 추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DP World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 이 파업으로 인해 육류 및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이 부패하면서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매주 약 8,400만 호주달러(한화 약 740억 원), '23년 10월 이후 총 13억 4천만 호주달러(1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함

 - '24년 1월 15일 기준 약 4만 4천 개의 컨테이너가 호주 전역에 정체되어 있으며 파업이 끝나도 장치장 혼잡이 해소되기까지는 2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1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 7억 1,400만 달러 수준의 대규모 확장 계획²⁹⁾

- ▶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7억 1,400만 달러 규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억 8천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임

 - 탕헤르 메드항의 이번 확장 계획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 용량 확장과 적재 및 하역작업의 현대화에 중점을 둠
 - 이 자금 조달은 국제 금융 공사(IFC)로부터 1억 달러 대출과 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 보증 하에 2억 8천만 달러의 상업 대출을 통해 총당함
 - 탕헤르 메드항은 아프리카 및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 위치로 인해 아프리카의 무역과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The loadstar(2024.01.09.), <https://theloadstar.com/damaging-port-strikes-at-dp-world-australia-terminals-extended/>(2024.01.13. 검색)

29) Morocco world news(2024.01.09.), <https://www.morocroworldnews.com/2024/01/360031/tanger-med-port-plans-massive-world-bank-backed-714-million-expansion/>(2024.01.1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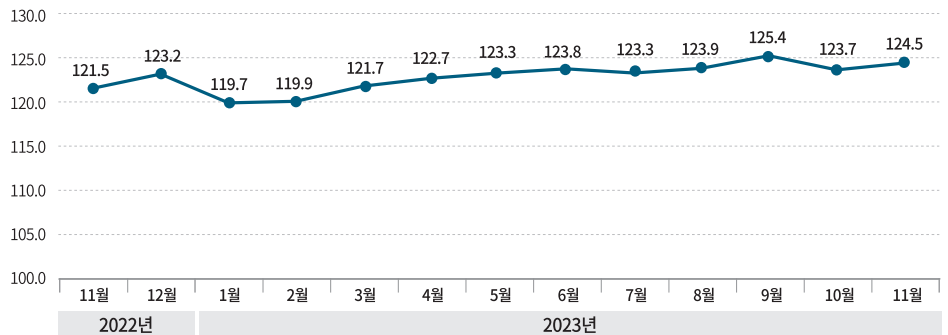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3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2.5% 증가³⁰⁾

- 📌 '23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0.6% 소폭 증가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 세계 처리량 지수가 둔화됨
 - 11월의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 지수는 135.3p로 전월 대비 0.4% 소폭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를 기록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월 101.0p로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6.6% 하락하면서 '23년 3월(98.5p) 이후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1.5	123.2	119.7	119.9	121.7	122.7	123.3	123.8	123.3	123.9	125.4	123.7	124.5	0.6	2.5
China Index	134.0	133.8	132.0	129.7	135.9	136.7	137.6	139.2	137.3	138.7	138.4	135.9	135.3	-0.4	1.0
North Range Index	108.1	110.5	100.3	108.6	98.5	109.5	105.8	106.6	107.3	104.9	103.6	103.7	101.0	-2.6	-6.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3\(2024.01.1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3(2024.01.1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3\(2024.01.1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3(2024.01.11. 검색))


2 홍해 리스크로 인해 수에즈 운하 통과 컨테이너선 감소³¹⁾

-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인 홍해가 예멘 후티 반군의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 수가 크게 감소함

 - Clarkson Research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홍해 리스크로 인해 '24년 첫째주 홍해 인근 컨테이너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약 90% 감소함
 - 반면, 수에즈 운하 대체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에는 1월 9일 기준 364척의 컨테이너선이 운항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155척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세계 해운 선사 1위인 머스크의 Maersk Hangzhou호에 대한 공격 이후 선박들의 항로 전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코로나 당시 물류대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음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우 운송 시간이 10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증가하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있음
 - 실제로 상하이항에서 로테르담항으로의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지난 12월 23일 1,667달러에서 1월 5일 3,577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함

-  한편, 이러한 홍해 리스크로 인한 수에즈 운하 기피 현상 및 다른 선박들의 통과 지연 문제 등이 장기화된다면 향후 국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Financial Times(2024.01.10.), <https://www.ft.com/content/007e8ec6-7124-4e11-b40f-9863bf64df0c>(2024.01.11.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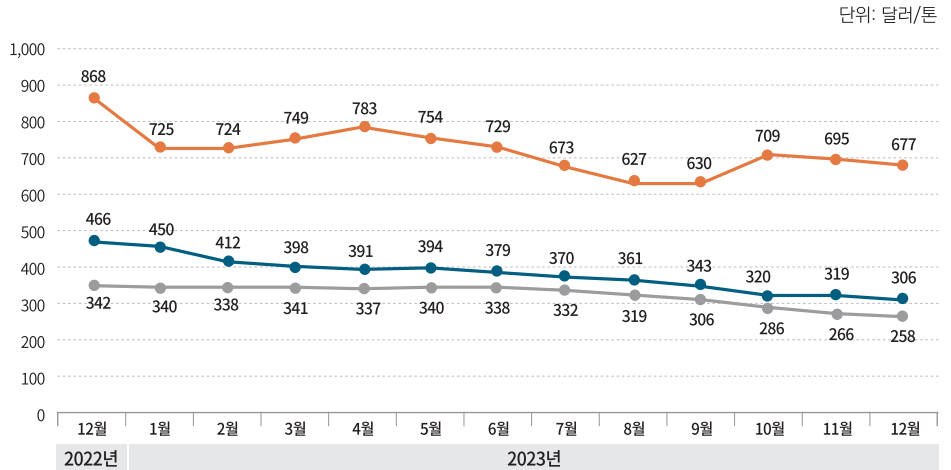


1 12월 곡물 수입 단가 전월 대비 감소, 밀은 전월 대비 4.0% 감소한 306달러/톤을 기록함³²⁾

- 옥수수 12월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3.2% 감소한 258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대두의 수입단가(677달러/톤)도 전월 대비 -2.6% 하락함
- 곡물 수입단가는 '22년 12월부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밀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3% 감소함
 -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단가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0%, -24.5% 감소하였음

밀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곡물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2.1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밀	466	450	412	398	391	394	379	370	361	343	320	319	306
대두	868	725	724	749	783	754	729	673	627	630	709	695	677
옥수수	342	340	338	341	337	340	338	332	319	306	286	266	258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12월호(2023.11. 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535/page/1, (2023.12.21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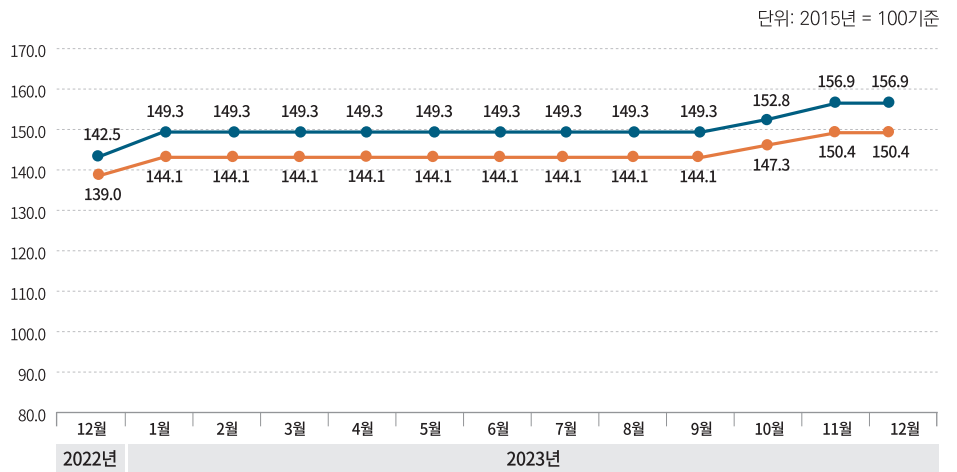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1 12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12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과 동일한 156.9p, 150.4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8.2%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소폭 상승했으나 '23년 11월에 이어 보합세를 보임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42.5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52.8	156.9	156.9	0.0	10.1
고로슬래그	139.0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7.3	150.4	150.4	0.0	8.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1.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1.2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업계 친환경 설비 투자 증가 계획³³⁾

-  국내 시멘트 업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대신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순환자원 재활용 설비 및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 설치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함

 - 쌍용C&E는 탄소 감축 및 환경 개선을 위해 '30년까지 약 8,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했으며, 시멘트 소성공정(원료를 가열해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총 3,600억 원을 투자함
 - 쌍용C&E는 현재까지 2,20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1,4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30년 기준 세계 시멘트업계 최초로 탈석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임
 - 쌍용C&E는 시멘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확대, 현재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운영하는 선택적 비촉매환원 설비 대신 효율이 높은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를 설치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 수준 대비 30% 감축할 계획임
 - 아세아시멘트는 국내에서 가장 빨리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삼표시멘트는 연료 전환 및 친환경 혼합 시멘트 생산으로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73만 톤 감소시킴
 - 한일현대시멘트는 영월공장에 친환경 발전설비를 도입해 탄소배출 감축 및 연료 재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 예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한국시멘트협회(2024.01.08.), [http://www.cement.or.kr/bodo_2014/news2_view.asp?sm=4_4_0\(2024.01.18 검색\)](http://www.cement.or.kr/bodo_2014/news2_view.asp?sm=4_4_0(2024.01.18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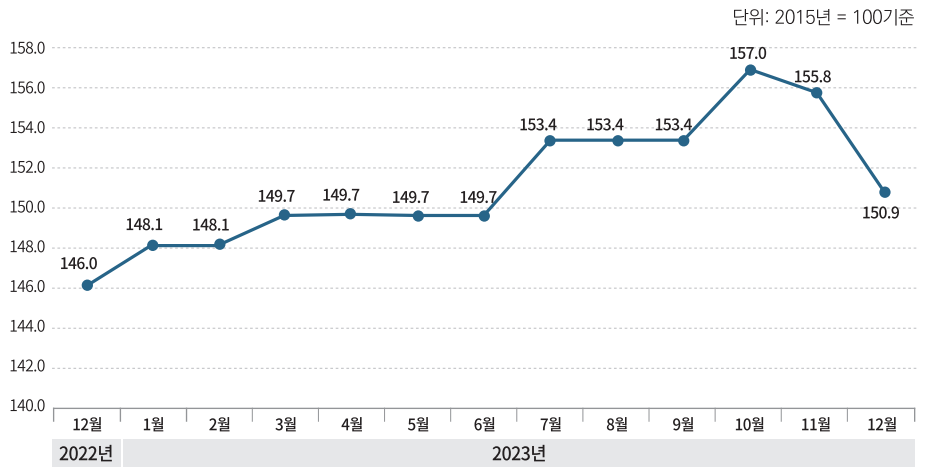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50.9p 기록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
- '23년 11월부터 시작된 인천지역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생산자물가지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157.0	155.8	150.9	-3.1	3.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1.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1.2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토교통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³⁴⁾

-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21일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함
 -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은 골재 표준납품서를 기반으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을 고도화해 골재채취원에서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파악 및 관리하는 것이 핵심임
- 국토교통부가 구상하는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은 '골재채취원', '레미콘 공장', '현장 감리'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됨
 -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은 골재 표준납품서를 기반으로 골재채취원 단계에서는 골재 채취 장소, 시각, 규모, 품질 및 납품 정보 등을 수집, 레미콘 공장 단계에서는 골재 반입, 레미콘 품질, 반출 정보를 관리하며, 현장 감리 단계에서는 레미콘 반입 규모 및 품질 등을 확인함
 - 국토교통부는 KS 인증 콘크리트 골재용 납품서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KS 인증 납품서 표준 양식은 출하 시기, 제조사명, 판매자명, 명칭 및 종류 등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는 골재 표준납품서를 도입, AGRIS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대한경제(2023.12.22.),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yno=202312180931585050529\(2024.01.09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yno=202312180931585050529(2024.01.09%20검색))

5) 석탄



① '23년 12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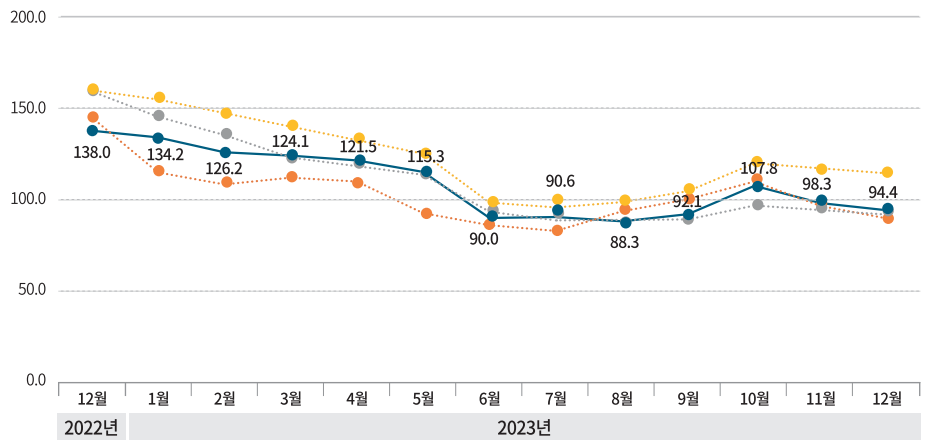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12월 평균가는 94.4달러로 전월 대비 4.0% 감소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 유연탄 가격이 4.0%, 남아공 리차드베이산 7.2%,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2.7%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4.0	-31.6
리차드베이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7.2	-38.2
칼리만탄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91.9	-2.7	-42.4
중국남부	159.9	155.0	147.5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6	-28.4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1.23.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³⁵⁾

-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대기 정체 및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서울·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m³당 50 µg(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였으며, 28일에는 경기도까지 평균 50µ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 2기는 가동 정지되고, 4기는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함
 -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 시행,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실시 등의 조치가 시행됨
 - 정부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3월 31일)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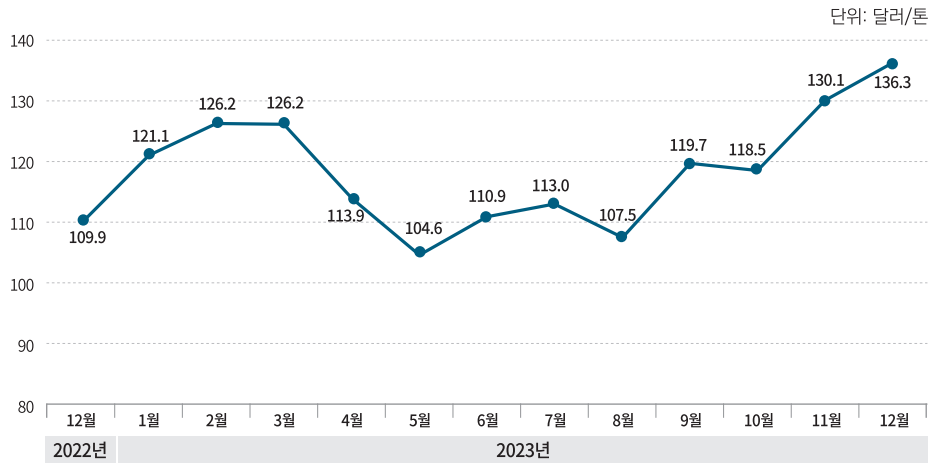
6) 철광석



1 '23년 12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4.1% 급증한 136.3달러 기록

- '23년 12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136.3달러로 '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함
- 올해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0~115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급등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가격 급등의 원인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됨³⁶⁾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가격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4.8	24.1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1.16.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 등으로 철광석 가격 하향 안정화 전망³⁷⁾

- 중국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최근 철광석 가격이 톤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10년 간 철광석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전망됨**

 - 글로벌 에너지 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는 중국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향후 10년 동안 철광석 수요가 '23년 대비 약 3%(6,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 철광석을 원료로 활용하는 용광로 기반의 철강 생산은 감소하고 철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설비가 증가하여 '33년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23년 대비 2억 7,0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중국 철광석 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낮은 품위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의 철광석 생산량 역시 향후 10년 동안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중국의 철광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의 용광로 생산용량 증대에 따른 철광석 소비 증가세가 이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현재 철광석 순수출국인 인도의 경우 '30년 중반에는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풍부한 수소 및 재생 에너지원이 수소환원제철(수소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 등 친환경 기술 기반의 철강 생산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이러한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 등으로 세계 철강 생산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철광석 공급망이 변화하는 등 장래 철광석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 역시 장래 철광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연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철광석 가격은 톤당 95달러, '25년은 톤당 75달러, '26년은 톤당 75달러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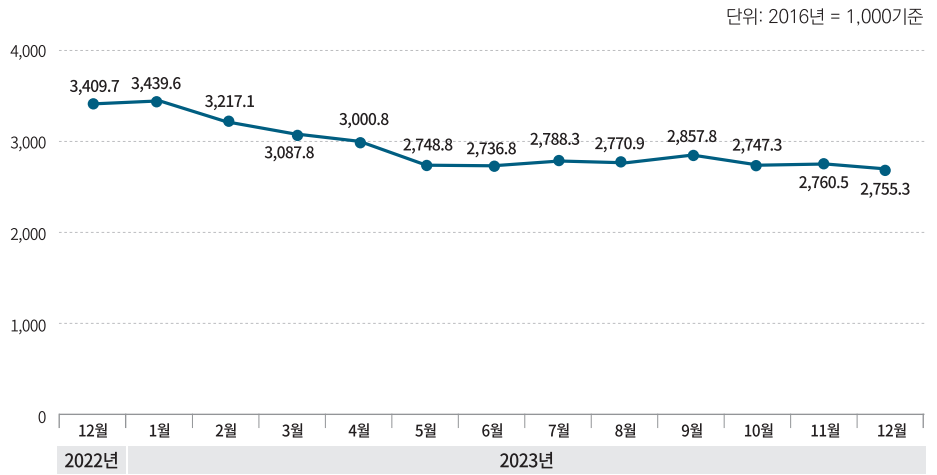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2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55.3p로 전월 대비 0.2% 감소함

’23년 12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9.2% 하락한 2,755.3p를 기록함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 종합지수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0.2	-19.2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1.23](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1.23)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사우디아라비아, 광물자원 매장량 추정치 2배로 증가³⁸⁾³⁹⁾

📌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 매장량이 약 3,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에 따르면, '16년 1조 3,000억 달러(약 1,700조 원)였던 인산염·금·희토류 등 미개발 광물자원 추정치를 올해 2조 5,000억 달러(약 3,300조 원)로 상향 조정함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뿐 아니라 금, 은, 구리, 납, 철광석, 희토류, 아연, 인산염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광산 개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경제를 떠받칠 주축으로 삼고 있는 핵심산업 중 하나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4년 중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0개 이상의 광산 탐사 허가를 내줄 계획임

* 비전 2030은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원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8) CNBC(2024.01.10.), <https://www.cnbc.com/2024/01/10/saudi-arabia-nearly-doubles-estimate-for-the-value-of-its-mineral-resources-.html>(2024.01.15. 검색)

39) 한국경제(2024.01.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06143i>(2024.01.15. 검색)

8) 목재



1 '23년 1~11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94.0만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

- 🏠 국내 건설/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며 수입물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산지의 목재제품 가격 보합세가 지속됨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은 20.4%, 제재목은 5.2%, 성형목재는 13.5%, 합판은 4.8%, 목재펠릿은 3.8%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3년 누적 (1-11월)	2022년 누적 (1-11월)	증감률(%)
원목(천m ³)	1,940	2,436	-20.4
제재목(천m ³)	1,629	1,719	-5.2
성형목재(톤)	76,184	88,097	-13.5
합판(천m ³)	1,215	1,276	-4.8
파티클보드(천m ³)	1,130	1,133	-0.3
섬유판(천m ³)	210	184	+14.1
목재펠릿(천 톤)	3,376	3,510	-3.8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12.21.),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0300&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1.15.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2 산림청,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⁴⁰⁾

-  산림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기업 지원 수출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대체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10억 원), 수출 통합조직 육성사업(3.6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10억 원)은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함
 -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수입상(바이어) 초청, 해외 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 홍보 등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임
 - 올해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등 2개 품목으로, 향후 ’30년까지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 특화시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할 예정임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40) 산림청 보도자료(2024.01.1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9129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rgld=\(2024.01.15.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9129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rgld=(2024.01.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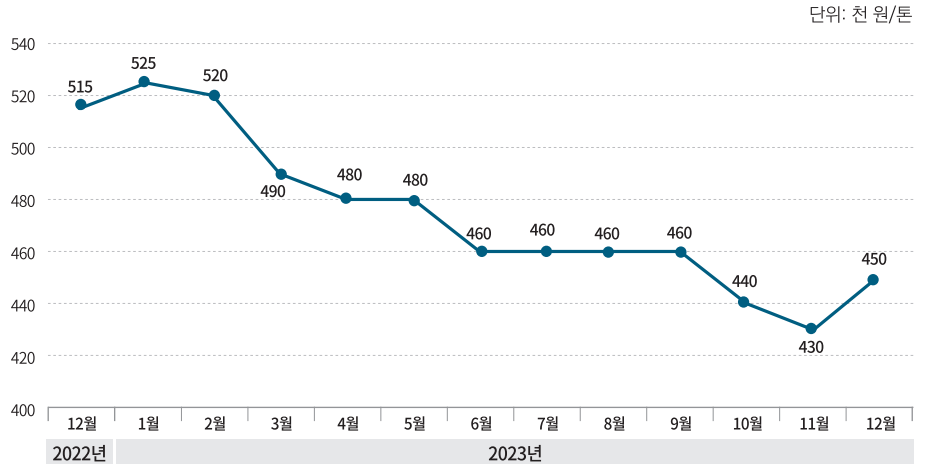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12월 국내 고철 가격 반등

- 📍 국내 12월 생철 가격은 톤당 45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11개월동안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24년 12월 톤당 2만 원 증가함
- 글로벌 고철 가격의 선행 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가격이 작년 10월 셋째 주 톤당 335달러에서 12월 첫째 주 톤당 428달러까지 7주 연속 상승하고 12월 말까지 유지되는 등 글로벌 가격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시세 대비 저평가된 국내 고철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분석됨⁴¹⁾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	-1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1.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1.23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1) 철강금속신문(2023.12.27.), <http://pdf.snmnews.com/PDF/REAL/2023/12/27/PS011227010100301B0001.pdf>(2024.01.23. 검색)

2 미국, 고품질 고철 수요 대규모 증가 전망⁴²⁾

- '24년 미국 내 많은 제강사들이 전기로 생산능력을 확장함에 따라 고품질 고철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후 미국 철강업체들이 발표한 연간 약 2,425만 톤의 신규 생산능력 중 약 60%가 '24년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프라임 등급 고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구리 등 불순물이 적은 저가 파쇄 고철 등 대안적 원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 철강업체들은 '21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고철 등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옴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4.01.10.),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1/10/PS010110010100301B0001.pdf>(2024.01.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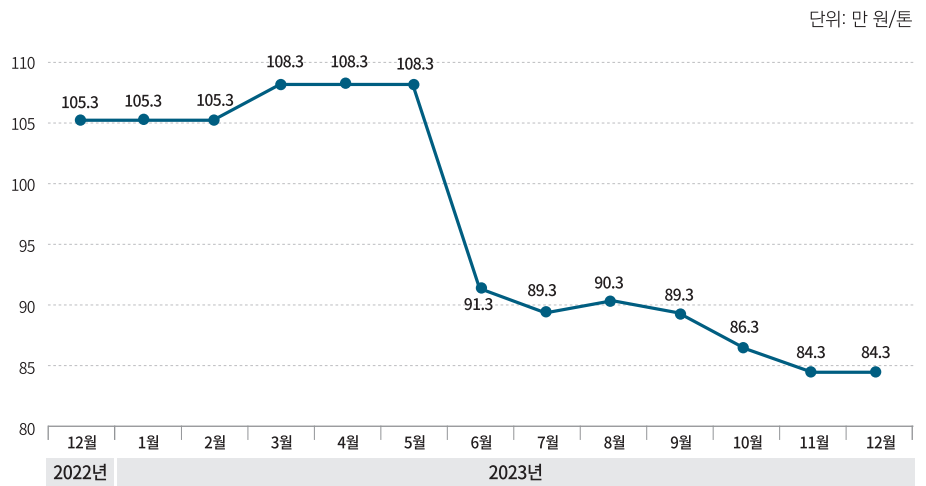
10) 철재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약보합세 유지

- 12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과 같은 84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9.9% 하락한 수준임
- '22년 4월에 톤당 130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2년 하반기에 톤당 100만 원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으며, '23년 하반기에는 지속된 철강 전방 수요 침체로 톤당 80만 원대까지 하락함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84.3	0.0	-19.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1.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1.23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 과잉 심화⁴³⁾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철강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3년 말 기준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준인 24억 9천 8백만 톤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조강생산량과 철강 생산능력의 차이는 '22년 말 5억 6천만 톤에서 '23년 말 6억 1천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24~'26년 동안 약 1억 2,400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과잉 문제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철강 생산은 설비 특성상 공장 가동에 높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의 가동률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생산설비 과잉으로 인한 가동률 감소는 산업 내 수익성 악화, 고용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 '23년 국내 철강 수출입 물동량 전년 대비 증가⁴⁴⁾

-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 주요국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3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2,883만 5천 톤, 수입은 3.2% 증가한 2,210만 6천 톤을 기록함

 - 수출의 경우 '22년 포항 침수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대란에 따른 유럽의 공급 부족 등이 증가세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 수출 지역별로는 튀르키예(+66.3%), 중동(+23.1%), 인도(+14.8%), 일본(+14.1%) 등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15.6%), 대만(-7.7%), CIS(-6.7%) 등이 감소함
 - 수입의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전방산업 경기 호조로 소폭 증가세가 나타남
 - 수입 지역별로는 중국(+27.2%), CIS(+15.2%), 중동(+13.7%) 등이 증가한 반면, 아세안(-35.2%), 대만(-30.1%), 튀르키예(-28.5%), 북미(-25.8%) 등이 감소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OECD(2024.01.11.), <https://www.oecd.org/sti/ind/latest-developments-in-steelmaking-capacity-2024.pdf>(2024.01.18. 검색)

44) 철강금속신문(2024.01.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1/15/PS010115010101201A0001.pdf>(2024.01.18. 검색)

11) 자동차



① '23년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6만 476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⁴⁵⁾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판촉 확대와 신차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60,476대를 기록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4.2%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6.1% 증가한 58,253대로 국산 및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65.3%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는 수입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함
- 🔍 11월 수출은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EU 시장으로의 국산 SUV·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245,145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25.6% 증가한 62,098대이며, 특히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4.3% 증가함
 - 완성차 수출액은 SUV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65억 달러를 달성하여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함
 - 부품 수출액은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함
- 🔍 11월 생산은 월간 최대실적을 기록한 전년 11월 반도체 수급 병목현상 해소에 따른 역기 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370,513대를 기록함

단위 : 대, 백만 \$, %

'23.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11월
내수	1,684,113	155,987	1,523,128	141,349	160,476	1,596,004	13.5	2.9	4.8
(국산차)	1,384,722	126,775	1,253,656	116,863	132,502	1,336,679	13.4	4.5	6.6
(수입차)	299,391	29,212	269,472	24,486	27,974	259,325	14.2	-4.2	-3.8
수출	2,300,333	217,519	2,082,612	225,391	245,145	2,519,641	8.8	12.7	21.0
(완성차 수출액)	54,067	5,375	48,646	5,884	6,530	64,482	11.1	21.5	32.6
(부품 수출액)	23,316	1,856	21,329	1,772	1,927	21,192	8.9	3.8	-0.6
생산	3,757,049	379,797	3,403,677	341,024	370,513	3,875,966	8.6	-2.4	13.9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1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4&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1.15. 검색)

최석우 부연구위원

051-797-4777, schoi@kmi.re.kr

45)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1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1.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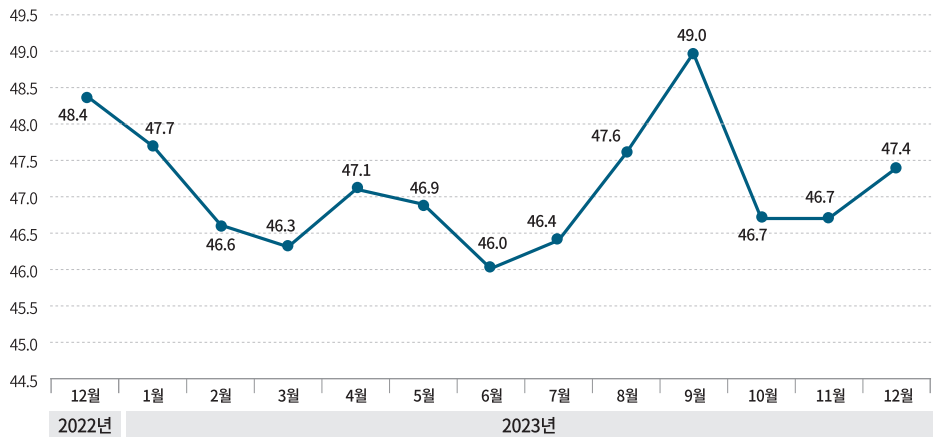
12) 잡화



1 '23년 12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는⁴⁶⁾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47.4p(+0.7p)를 기록함⁴⁷⁾

- 📌 미국의 12월 PMI 지수는 47.4p로 제조업 위축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주문은 47.1p로 전월대비 1.2p 하락한 반면 12월 고용 지수는 48.1p로 전월대비 2.3p 증가하였음
 - ISM 제조업지수의 부진 장기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고금리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이 정도 수준으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FED가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의사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확실한 경기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6)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47) Trading Economics(2024.01.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1.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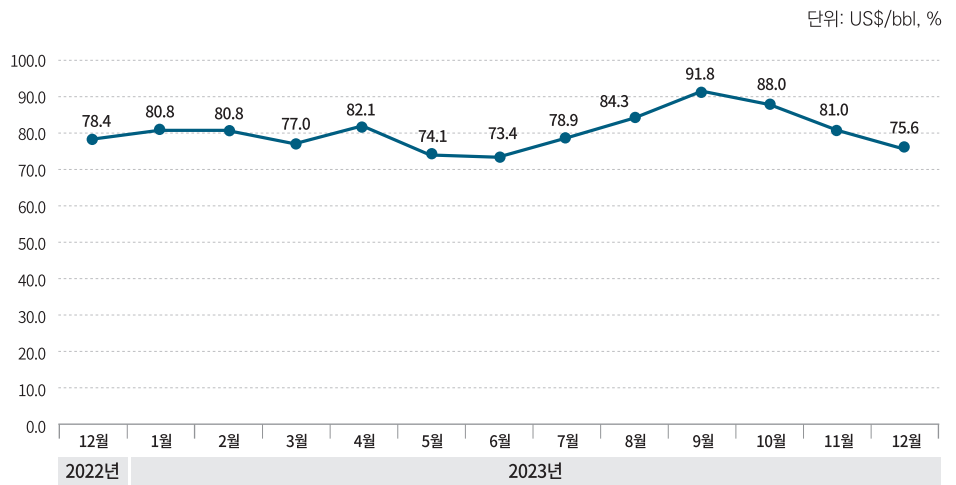
13) 유류



1 '23년 12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 📌 지난 6월 이후 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10월에 증가세가 꺾이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배럴당 평균 75.6달러를 기록함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이·팔 전쟁과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갈등의 확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유가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유가는 유동적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7.2	80.4	82.1	78.5	83.4	75.0	75.0	80.5	86.5	93.3	89.8	83.6	77.3	-7.4	0.1
Brent	81.3	83.9	83.5	79.2	83.4	75.7	75.0	80.2	85.1	92.6	88.7	82.0	77.3	-5.7	-4.9
WTI	76.5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1.3	89.4	85.5	77.4	72.1	-6.8	-5.8
평균	78.4	80.8	80.8	77.0	82.1	74.1	73.4	78.9	84.3	91.8	88.0	81.0	75.6	-6.7	-3.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홍해지역 수송리스크 증가에도 LNG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⁴⁸⁾

-  홍해 인근에서 발생한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LNG 선박들이 우회로를 찾아 이동하는 등 LNG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S&P Global에 따르면, 홍해의 수송리스크 증가로 최소 3척의 LNG 선박이 원거리로 우회 이동 중이며, BP도 당분간 홍해를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파나마 운하에 이어 홍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한 LNG 수송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원거리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 경유로 LNG 수송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 미국산 LNG는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대체경로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여 아시아로 수출되었으나, 수에즈 운하가 홍해 수송리스크로 통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원거리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수송일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수송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유럽과 아시아는 천연가스 재고가 충분하며 11월 이후 온화한 날씨로 난방수요가 저조하여 수급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후티 반군의 활동이 LNG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번 사태로 카타르의 유럽향 LNG 수출이 감소해도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해 미국의 유럽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유럽의 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아시아향 LNG 수출이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감소하더라도 카타르가 유럽향 수출물량을 아시아로 전환하게 되면 아시아의 LNG 도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2.1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3 '24년도 미국 천연가스 시장, 수반가스로 인한 공급 과잉 전망⁴⁹⁾

- S&P Global은 석유 생산 시 동시에 생산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natural gas)가 '24년도 미국 천연가스 시장에서 공급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수반가스 공급 증가로 인해 '24년 천연가스 전체 공급량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량 조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천연가스 시장에서 주로 다수를 차지하는 석유생산자들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어, 석유생산 증가에 따른 수반가스 공급량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앙골라, OPEC 탈퇴 선언⁵⁰⁾

- 앙골라는 OPEC에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3년 12월 21일부로 OPEC 탈퇴를 선언함**

 - 주요 언론은 금번 탈퇴 선언의 주 배경으로 '24년 원유 생산 쿼터 축소를 추정함
 - '23년 6월 4일, 제35차 OPEC+ 회의에서 결정된 '24년 원유 생산 쿼터 발표 시, 앙골라 등 아프리카 3개국의 생산 쿼터는 재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며 관련 내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암시함
 - 이후 '23년 11월 30일, 제36차 OPEC+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앙골라의 '24년 원유 생산 쿼터는 제35차 회의 당시안(128만b/d)보다 더욱 축소된 111만b/d임
 - 앙골라는 회의 전인 11월 23일 OPEC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회의 이후 공개적 반발을 표출하며 일방적으로 강요된 '24년 자국 원유 생산 쿼터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함
 - '07년 OPEC에 가입한 앙골라의 연평균 원유 생산량은 '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제 35차 회의에서 결정된 생산 쿼터 128만 b/d은 최근 5년 원유 생산량 평균인 125만 b/d을 웃돌고 제36차 회의에서 축소된 111만 b/d은 '21년 이후 연평균 생산량에 근접하여 감산이라 보기 어려움
 - OPEC 가입에 따른 앙골라의 실익이 크지 않으나, 앙골라 등 아프리카 회원국의 생산 쿼터 축소는 간접적으로 주요 중동국의 생산 쿼터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음

4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2.2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5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12.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 앙골라의 일 평균 원유 생산량이 110만 b/d 수준으로 앙골라 제외 OPEC 일 평균 원유 생산량(2,700만 b/d)의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탈퇴 선언이 당장 OPEC 시장 지배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함
- 다만, 제36차 회의 이후 OPEC의 결속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금번 탈퇴 선언이 OPEC에 주는 상징적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 정유산업, 유럽 감소, 중동·아프리카·중국 증가⁵¹⁾

- 유럽 정유사들은 석유 수요 감소로 정제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어 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년 이후 유럽 내 정제설비 중 6곳이 폐쇄되었으며, Petroineos사의 영국 Grangemouth 정제설비(15만 b/d)와 Shell사의 독일 Wesseling 정제설비(14.7만 b/d)도 '25년 폐쇄될 예정으로 총 설비 폐쇄 규모는 93.5만 b/d로 추산됨
 - Total Energies, Shell, ExxonMobil 등 주요 석유회사들도 '20년 이후 8개 유럽 정제설비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유럽 정유산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중국에 정제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BP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후 유럽의 석유정제능력은 16% 감소했으나 아시아와 중동은 각각 67%, 64%씩 증가함
 - S&P Global은 '20년과 '21년에 미국과 유럽 정제설비 폐쇄로 세계 석유정제능력이 100만 b/d 축소되었으나, '23년부터 '25년까지 중동·아시아 주도로 세계 정제설비 능력이 30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내 정제설비 축소로 역내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동·아시아로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유 수급 상황이 완화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0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6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아항 공식판매가격 인하⁵²⁾

사우디는 2월 원유 공식판매가격(Official Selling Price: OSP)을 하향 조정함

- 대표 판매유종인 Arab Light의 전 지역 공식판매가격을 전월 대비 \$2/B 인하하여 2월 아시아항 OSP(오만/두바이 평균가격 대비 +\$1.5/B)는 2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사우디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 감소로 '23년에 OSP를 지속 인상해왔으나, 최근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요지인 아시아 현물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OSP를 인하함
- 북반구 봄철 일부 아시아 정제공장이 유지보수에 들어감에 따라 수요 감소가 반영되어 최근 아시아 현물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국제 해운·유조선협회, 홍해 항로 중단 권고⁵³⁾

국제 해운·유조선협회들은 홍해지역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회원사들에게 해당 지역을 우회할 것을 권고함

-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지역 상선 위협 심화와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군사시설의 공격('24.01.12)으로 해당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
- 이에 국제 유조선 70%가 가입된 국제유조선주협회(Intertanko)는 회원들에게 최대 24시간 동안 Bab el-Mandeb 해협 운항 중단을 권고함
- 전 세계 선박 적재량 62%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보유한 발트국제해운협회(BIMCO)도 회원들에게 최대 72시간 동안 홍해 운항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 다만, 시장 분석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에도 경로를 변경하는 유조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0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5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15),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1.17.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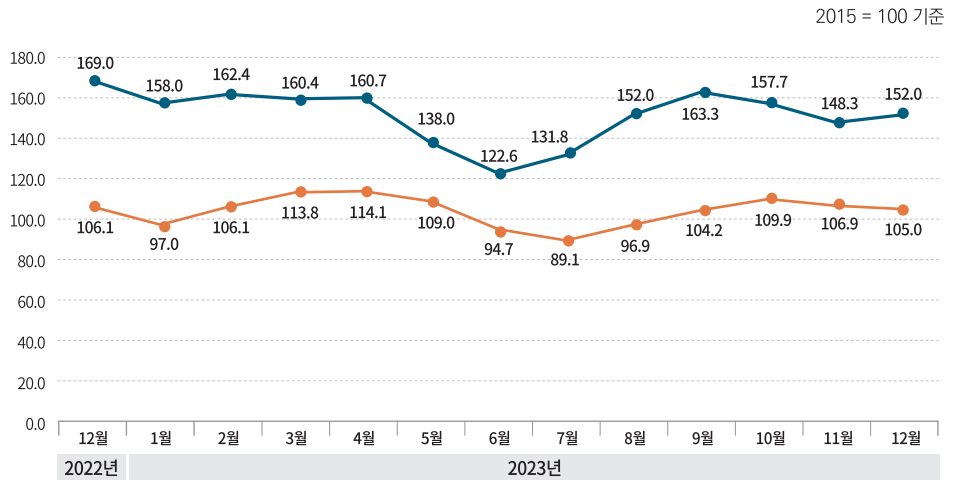


1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상승·에틸렌 하락

- 🔍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의 경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에틸렌은 하락세를 이어감
 - 나프타는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며, 에틸렌 생산 원료로 사용되므로 통상 에틸렌 지수 대비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음달 에틸렌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홍해 리스크 등으로 유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 추이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63.3	157.7	148.3	152.0	-5.6	-11.9
에틸렌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104.2	109.9	106.9	105.0	-2.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1.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1.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업계, '24년도에도 공급과잉·수요부진 지속 전망⁵⁴⁾⁵⁵⁾⁵⁶⁾⁵⁷⁾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주요 4개 석유화학기업의 '23년 합산 영업이익이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 줄어든 전망임

- '23년 초, 업계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23년 하반기부터 수요 증가를 기대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수요 증가 폭이 제한됨
- '23년 상반기 국내 수요 감소로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의 마진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자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생산시설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생산시설의 정기보수를 집중 추진함
- '23년 11월 한국신용평가의 '석유화학 산업 2023년 3분기 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는 '23년 3분기 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 래깅효과로 직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됨
- 다만, 절대 이익 창출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21년 4분기 이래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으며,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한 이후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됨
- 또한,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3년 4분기에는 2분기와 비슷한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래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수익성은 당분간 계속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24년에는 글로벌 에틸렌 생산력이 2억 3,000만 톤에 달하는 등 수요를 약 4,000만 톤 가량 상회할 전망이다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신·증설이 이뤄질 예정이며, 에틸렌, 부타디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국내 업체들의 주력 제품을 둘러싼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내 업체들의 정기보수 종료로 공급역량이 늘어나겠으나 수출단가가 축소될 수 있으며,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등 공급과잉 기조와 수요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석유화학 업계 불황은 '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쿠키뉴스(2023.12.2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2200265\(2024.01.17. 검색\)](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2200265(2024.01.17. 검색))

55)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2.21.),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92\(2024.01.17. 검색\)](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92(2024.01.17. 검색))

56) 에너지경제(2023.12.21.),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1220010006179\(2024.01.17. 검색\)](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1220010006179(2024.01.17. 검색))

57)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2.21.),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93\(2024.01.17. 검색\)](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93(2024.01.17. 검색))

3 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신성장동력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증가⁵⁸⁾⁵⁹⁾

-  석유화학업계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기존 사업으로는 기업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재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의 '24년 설비투자 계획 규모는 약 11조 원이며, 특히 LG화학은 5조 원을 투자하여 대부분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전지 재료와 친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분야에 활용할 방침임
 - 업계는 현금보다 차입금이 많아 안정적인 현금흐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리한 투자로 재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 하락으로 신용등급마저 하락함
 - 석유화학 기업은 한계사업 정리 및 유희 부동산 매각 등으로 투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락 압박이 거세지면서 예정된 계획의 일부 수정을 고민하고 있음
 - 업계는 제품 판매량 및 실적감소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적하락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 투자를 멈출 수는 없어 자금 투입량을 일부 축소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8) 스트레이트뉴스(2023.12.26.),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29>(2024.01.17. 검색)

59) 한국석유화학협회(2023.12.26.),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896(2024.01.17.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1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